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한국사회위험지수 분석¹⁾

Attitudes towards Social Risks in Korea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욱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센터장
신승배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교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태도는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제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위기, 학교폭력, 자살, 물지마 살인, 환경 파괴, 신종 전염병 등 사회적 위험이 편재해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험에 대한 노출은 계층화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이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여 사회위험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를 점검하고, 이러한 불안의식이 사회구성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위험사회의 구성요소를 구축하여 실태조사한 후, 이를 지수화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서론

원전사고, 식품오염, 기후변화, 신종플루, 구제역, 조류독감 등과 같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면서 위기가 증대하고 있다. 국민안전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어 사회적인 이슈화 되었다.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안전성은 유지되지 않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통제되지 않는 위험(risk)들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 사회학자

Beck은 현대사회는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하였다.²⁾ 그는 산업화의 확대가 사회의 위험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진이나 폭우,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가 주된 위험의 대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과정에서 파생된 다양한 잠재적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위험에는 방사능, 식품안전, 약물오남용, 전염병, 사고(교통, 화재 등), 범죄, 환경오염, 산업재해, 자연재해, 기후변화, 실업·고용·빈곤,

1) 본고는 '김미숙·이상영·정진욱·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임.

2) Beck, Ulrich(1994). "The reinvention of politics: towards a theory of reflexive Modernization." (eds.) in U. Beck, A. Giddens, S. Lash,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1-5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노화·노후불안, 사생활침해, 인간성 파괴, 전쟁 등이 있다. Beck은 현대사회의 위험을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근대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과학기술의 과도한 도구적 활용의 결과로 파생되어 인간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사회 전체에 퍼져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가해자를 찾거나 위험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³⁾ 이로 인해서 사회구성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위험의 원인에 대응한 합의된 대처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위기, 학교폭력, 자살, 묻지마 살인, 환경파괴, 신종 전염병 등 사회적 위험이 편재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세계적인 상황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만 잘 운영 및 관리한다고 위험에서 보호되지 못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험에 대한 노출은 계층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고, 차등화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이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여 사회위험에 대한 국민의 불안정도를 점검하고, 이러한 불안의식이 사회구성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태도는 사회

복지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제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즉, 국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정도 및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의식이 성, 세대,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사회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소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⁴⁾ 이를 위해서 위험사회의 영역을 7가지로 선정하였고, 위험의 구성요소를 4가지인 위험요인, 위험노출, 위험취약성, 위험에의 대처능력으로 구성하여 실태조사한 후, 이를 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위험사회의 개념과 위험의 영역

1) 위험사회에 대한 Beck의 개념정의

위험사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독일 사회학자 Beck이다. Beck(1992)은 위험을 재앙(disaster)과 비교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발생가능성 있는 미래의 사건”이라고 하였다.⁵⁾ 즉 그는 위험은 불확실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측정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다.⁶⁾ 그는 사회적 위험을 현대사회의 변

3) 김영란(2011). 한국의 사회적 위험구조 - 위험의 민주화 또는 위험의 계급화?, *담론* 2001, 14(3), pp.57~88.

4) Beck(1997)은 산업사회에 의해 초래된 위험의 경제적 비용으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간 갈등을 초래하였고, 위험의 생산과 인식의 불일치, 위험의 생산과 소비의 긴장 등으로 정치적 갈등까지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음.

5) Beck(1994). 앞글.

화를 진단해내는 핵심개념이라고 하면서, 위험 사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⁷⁾

첫째, 현대사회의 위험은 통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위험의 크기가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은 대중매체와 전문가 등의 핵심적인 지위집단에 의해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구성될 소지가 많다.

둘째,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럽 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태평양 인근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현대사회의 위험은 어디서나 발생하고,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험은 급속도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⁸⁾

셋째, 현대사회의 위험은 부메랑과 같다. 위험을 생산하거나 위험을 통해 이익을 본 사람들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부의 무분별한 물고기 포획은 수자원 고갈로 이어져 어부의 생계에 영향을 주고 농부의 화학비료를 통한 수확량 증대는 농부에게 토질 악화와 오염으로 위험을 유발한다.

넷째, 현대사회의 위험은 새로운 시장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험에 의해서 보험시장이

창출된다.

다섯째,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지식을 통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이 그 존재를 규정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위험은 위험을 규정하는 지식주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지식이 새로운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Beck은 위험사회의 정치적 잠재력이 사회학적 견지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위험은 정치적이다. 위험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결과가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사회의 특징은 현대사회의 위험이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2) 위험사회의 구성요소

현대사회의 위험은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의 구성요소를 분류하고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위험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Bohle (2001)은 재해위험(disaster risk)의 구성요소로 위험노출(exposure)과 취약성(vulnerability), 대처능력(coping capacity)을 포함하였다.⁹⁾ 이와 유사하나 약간 다르게, Villagran de Leon(2004)은

6) Beck(1994). 앞글.

7) Beck(1994). 앞글.

8) Beck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비판이 되고 있음. 즉 위험은 보편적 및 전지구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 받는 영향은 계층에 따라 다르고 위험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는 것임.

9) Davidson, R.(1997). *An Urban Earthquake Disaster Risk Index*, The John A. Blume Earthquake Engineering Cente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Report No. 121,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Bollin, C., C. Cárdenas, H. Hahn and K.S. Vatsa(2003) *Natural Disaster Network: Disaster Risk Management by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vailable at <http://www.iadb.org/sds/doc/GTZ%2DStudyFinal.pdf>.

위험의 3요소를 취약성(vulnerability), 위험요인(hazard), 위험 대비 부족(deficiencies in preparedness)이라고 하였다.¹⁰⁾ 취약성이라 다른 위험 요인들에 의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가능성이고, 위험대비부족이란 사회의 대처능력 결핍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위험요인은 위험노출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본 고에서는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위험을 위험요인(hazard), 위험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대처능력(capacity and measures)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 참조). 위험요인은 위험의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성(severity)을 의미하고, 위험노출(exposure)은 위험과 관련하여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 인구, 경제 등에 의해 특성화된 것을 말한다. 취약성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위험이 다루어지는 정도를 말하며,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란 물리적 계획(physical planning), 사회적 대처능력(social capacity), 경제적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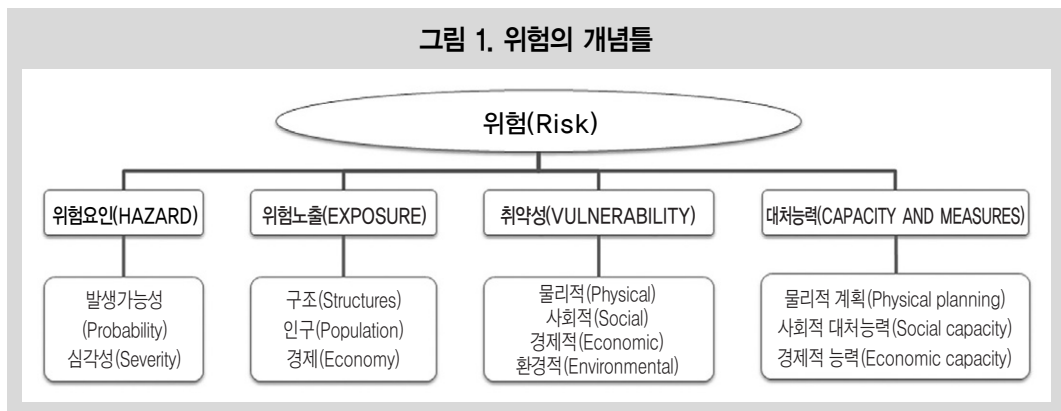
(economic capacity)과 관리능력(management) 등을 의미한다.

3. 조사개요 및 지수산출

1) 조사개요

실태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사회조사센터(SRC)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의 설문에 '위험사회'를 특별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의 형태로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일반국민 2,500명이고, 자료수집은 방문면접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의 내용은 크게 7개 위험영역과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10) Villagrán de León, J.C.(2004) *Manual para la estimación cuantitativa de riesgos asociados a diversas amenazas*, Guatemala: Acción Contra el Hambre, ACH.

다. 7개 영역에는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등이 고, 4개 차원은 취약성(vulnerability), 위험노출정도(exposure),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hazard), 정부의 대처(capability and measures)이다.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7개 영역(domains)은 다시 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다.¹¹⁾ 즉, 자연재해(natural)의 항목에는 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가 포함된다. 건강(health)영역은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이 포함되고, 생애주기(life cycle)영역은 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가 포함된다. 사회생활(social)영역에는 사생활침해, 폭력범죄,

표 1. 위험사회 영역 및 주요(조사) 내용

영역	내용
자연재해 관련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 및 태풍 •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 황사 및 가뭄 • 지진 및 쓰나미
건강관련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 먹거리 위험(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 • 정신건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생애주기 관련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불안 • 가족해체(이혼,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사회생활 관련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 침해(CCTV, 도청,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 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 •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유전자 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경제생활 관련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 및 빈곤 •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폭등 및 폭락) • 금융불안(국가 및 가계 부채,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 • 경기침체 및 저성장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위협(국지전 및 전면전) 및 북핵문제 •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환경 관련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사고(방사성 물질 누출 등) •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 등) • 자원(물, 에너지 등) 부족 및 고갈 •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주: 7개 영역은 7점 척도로 측정됨.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에 대한 의식이 높음(1-3: 비취약, 4: 중립, 5~7: 취약).

11) Davidson(1997) 앞글. Bollin et al.,(2003) 앞글.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이 있고, 경제생활(economic)영역에는 실업 및 빈곤, 주택 및 전세 가격 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이 있다. 정치 및 대외관계(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영역에는 북한의 위협,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고, 환경(environmental)영역에는 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등이 있다. 각 영역별 위험인식 정도를 4개의 차원별로 살펴보았다.

2) 한국사회위험지수 산술식

개념적 틀을 토대로 한국사회위험지수(KSRI: Korea Social Risk Index)를 구하기 위한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KSRI = \sum\{w \times H + w \times E + w \times V - w \times C\} \times 5$$

한국사회위험지수(KSRI)는 한국사회의 안전 및 위험과 관련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H: Hazard), 노출정도(E: Exposure), 취약성(V: Vulnerability)의 합에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C: Capacities and Measures)을 뺀 값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수의 가중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요인적재값(0~1)으로 계산하였다. 총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종 값에 5를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KSRI의 수치가 가지는 의미는 점수가 낮을수록 덜 위험한 사회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위험한 사회로 해석된다.

4. 사회위험에 대한 국민인식 실태

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50.1%, 여자 49.9%로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여기서는 연령보다는 세대가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대를 4개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의 세대구분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새롭게 명명하였는데, 이는 2013년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는 예코세대, 35~49세는 민주화세대. 50~58세는 베이비붐세대, 59세 이상은 산업화세대로 명명하였다. 그 결과 예코세대 31.8%, 민주화세대 32.3%, 베이비붐세대 15.2%, 산업화세대 20.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이 가장 많은 56.4%이고, 고졸 28.2%, 초졸 9.1%, 중졸 6.3%의 순이다. 응답자의 학력이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월소득은 200~400만원 미만인 가장 많은 30.7%이고, 그 다음은 400~600만원 미만 26.0%, 600만원이상 23.1%, 200만원 미만 20.2%의 순이다. 월소득별 위험사회인식 정도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영역이 거의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 34.3%, 중도 33.4%, 보수 32.35%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전체적 위험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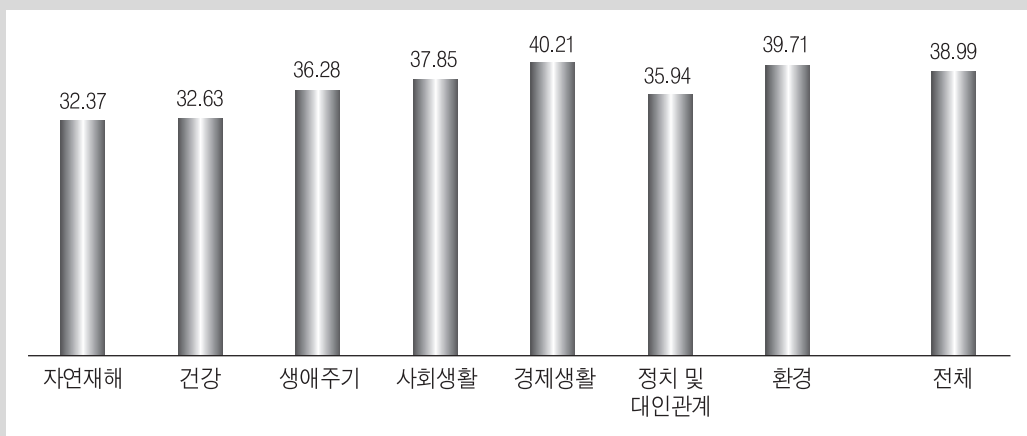
7개 영역을 합해서 파악한 우리 국민의 위험사회지수는 100점 만점에 38.99로 40점 이하로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빈도	비율
전체		1,288	100.0
성	남자	643	50.1
	여자	640	49.9
세대	에코세대(34세 이하)	409	31.8
	민주화세대(35~49세)	416	32.3
	베이비붐세대(50~58세)	195	15.2
	산업화세대(59세 이상)	266	20.7
학력	초졸	117	9.1
	중졸	81	6.3
	고졸	363	28.2
	대졸 이상	726	56.4
월소득	200만원 미만	241	20.2
	200~400만원 미만	366	30.7
	400~600만원 미만	310	26.0
	600~800만원 미만	132	11.1
	800만원 이상	143	12.0
정치성향	진보	422	34.3
	중도	410	33.4
	보수	397	32.3

그림 2. 영역별 위험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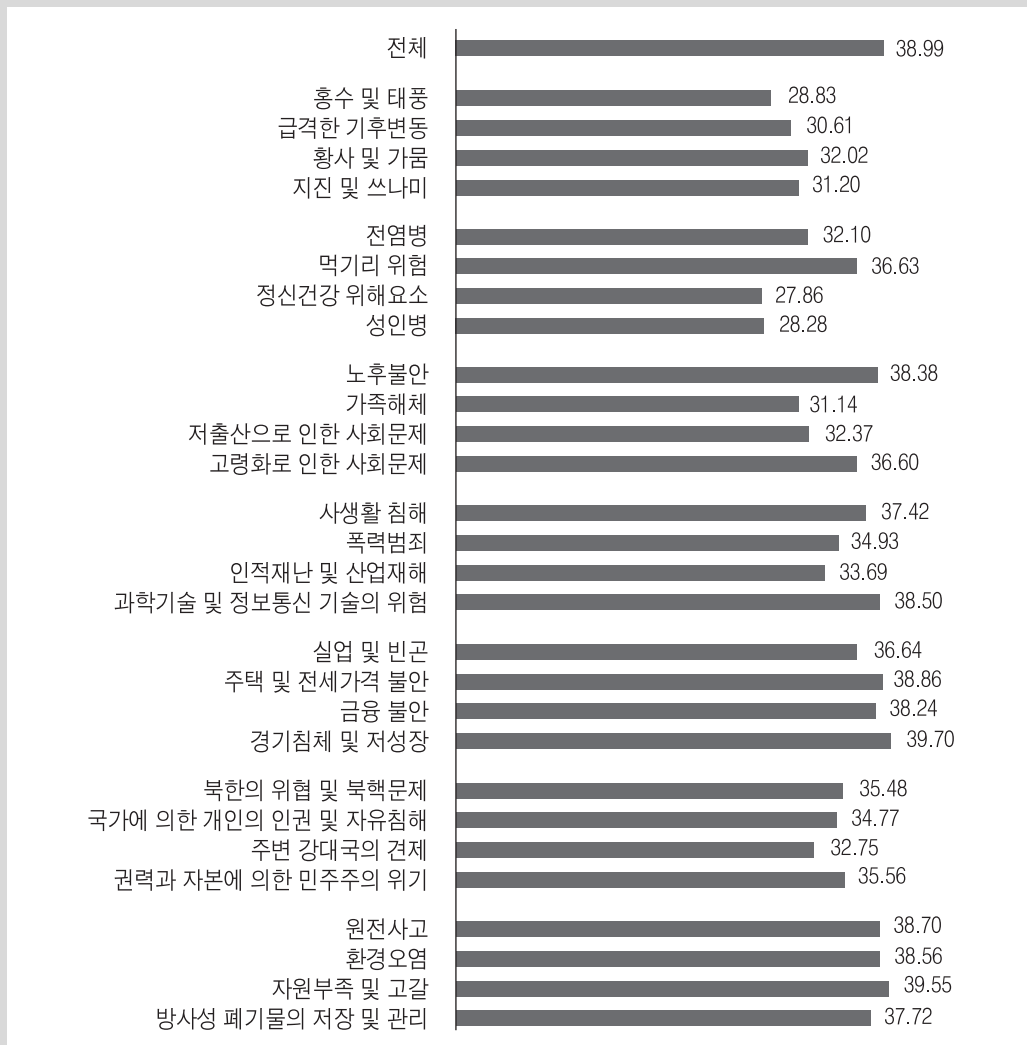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즉 위험사회지수는 중간 이하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7개 영역 중 지수가 높은 순으로 보면 경제생활 40.21, 환경 39.71, 사회생활 37.85, 생애주기 36.28 등의 순이다. 자연재해와 건강영역은 위험지수가 낮은

편이다. 즉 경제 및 환경, 생애주기에 대한 위험 인식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자연 및 건강부분의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항목별 위험사회지수를 분석한 결과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위험지수가 가장

그림 3. 항목별 위험지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높은 항목은 경기침체 및 저성장으로 39.70이었고, 그 다음은 자원부족 및 고갈 39.55, 주택 및 전세가격불안 38.86, 원전사고 38.70, 환경오염 38.5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38.50, 노후불안 38.38 등으로 경제생활과 환경 영역의 위험지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신건강 27.86, 성인병 28.28, 홍수 및 태풍 28.83 등은 30점 미만으로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즉 건강 및 자연재해 부분의 항목에 대한 위험인식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한국사회 위험지수를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는 성, 세대, 학력, 정치성향을 포함시켰다. 월소득은 정치영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한국사회위험지수의 경우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여자, 민주화세대, 대졸

자, 진보적 정치성향이 있는 국민들이 한국사회의 위험지수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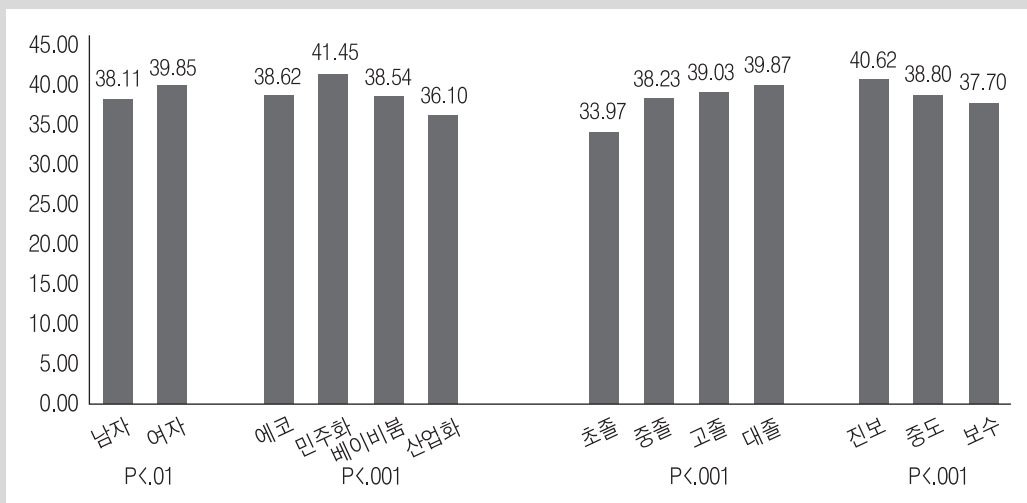
3) 자연재해영역 위험인식

자연재해 영역에서는 성, 세대,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였다(그림 5 참조). 남자보다는 여자가, 산업화 및 에코세대보다는 민주화세대가, 중졸의 경우가 자연재해에서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지적하였다. 정치성향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4) 건강 영역 위험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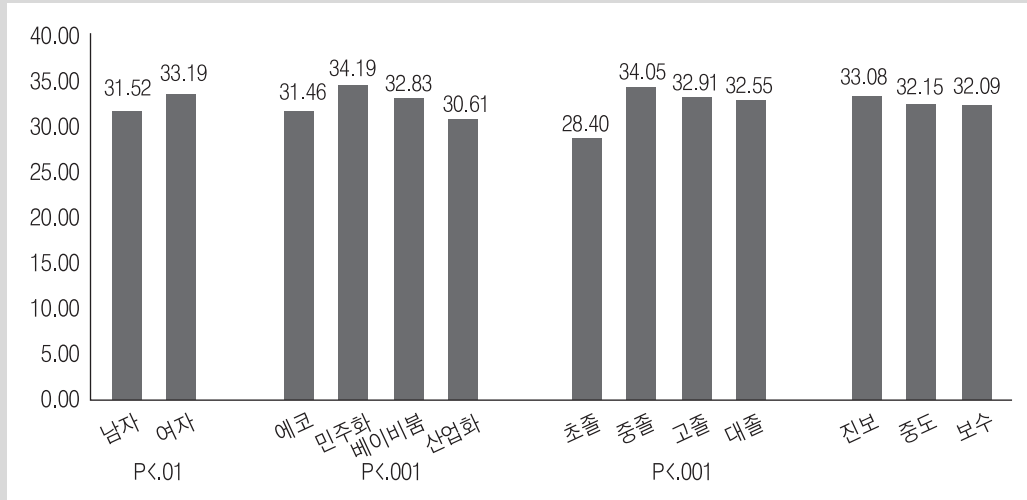
건강영역에서도 성, 세대, 학력별 차이가 유의하였다(그림 6 참조). 남자보다는 여자가, 산업화 및 에코세대보다는 민주화세대가, 대졸 및

그림 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국사회 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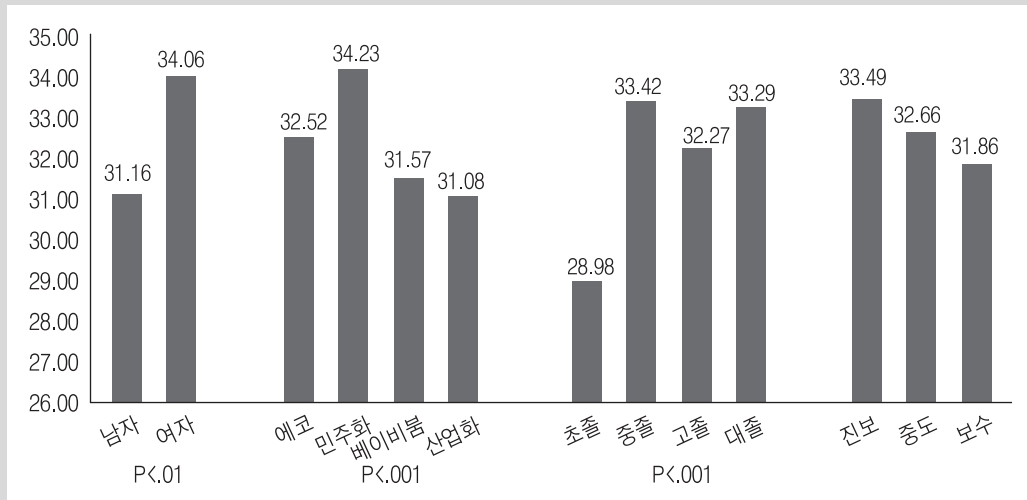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연재해영역 위험지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영역 위험지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중졸의 경우가 초졸 및 고졸보다 건강에서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지적하였다. 여기

서도 정치성향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5) 생애주기 영역 위험인식

생애주기 영역에서는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특성은 모두 유의하였다(그림 7 참조). 세대별로는 민주화세대가, 학력별로는 대졸의 경우가,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의 경우가 생애주기영역에서의 사회의 위험지수가 더 높다고 하였다.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6) 사회생활 영역 위험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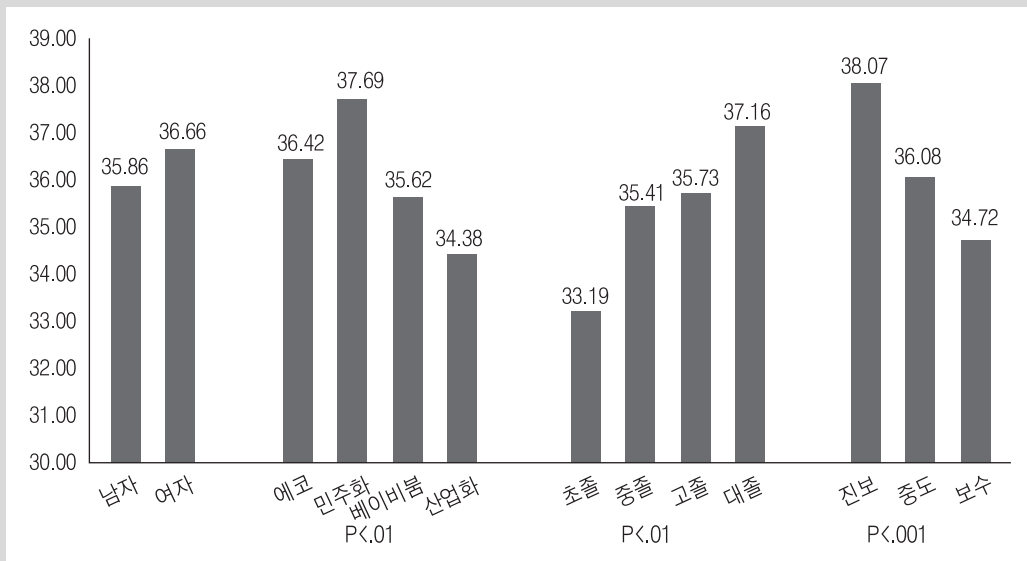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였다(그림 8 참조). 집단간 차이의 경향은 앞의 영역과 유사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산업화 및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민주화

및 에코세대가, 학력별로는 대졸 및 고졸이 중졸이하보다, 그리고 진보성향의 경우가 보수성향보다 사회생활영역에서 우리 사회위험의 지수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7) 경제생활 영역 위험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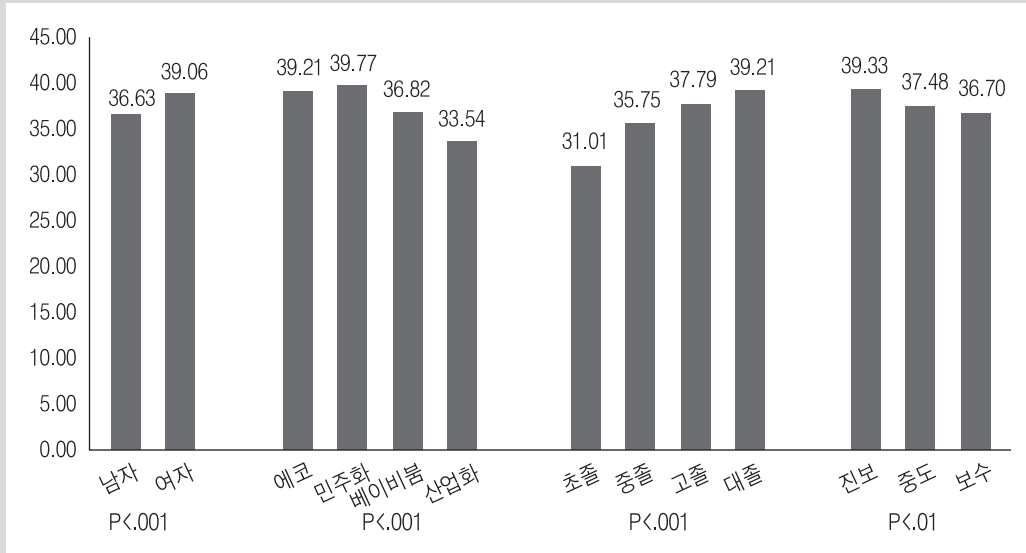
경제생활 영역에서는 세대, 학력, 정치성향별 차이가 유의하였다(그림 9 참조). 남자와 여자의 경우는 경제생활 위험지수를 비슷하게 지적하였고, 산업화보다는 민주화세대가,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의 경우가 그리고 진보성향의 국민이 경제생활 영역에서의 우리 사회의 위험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애주기영역 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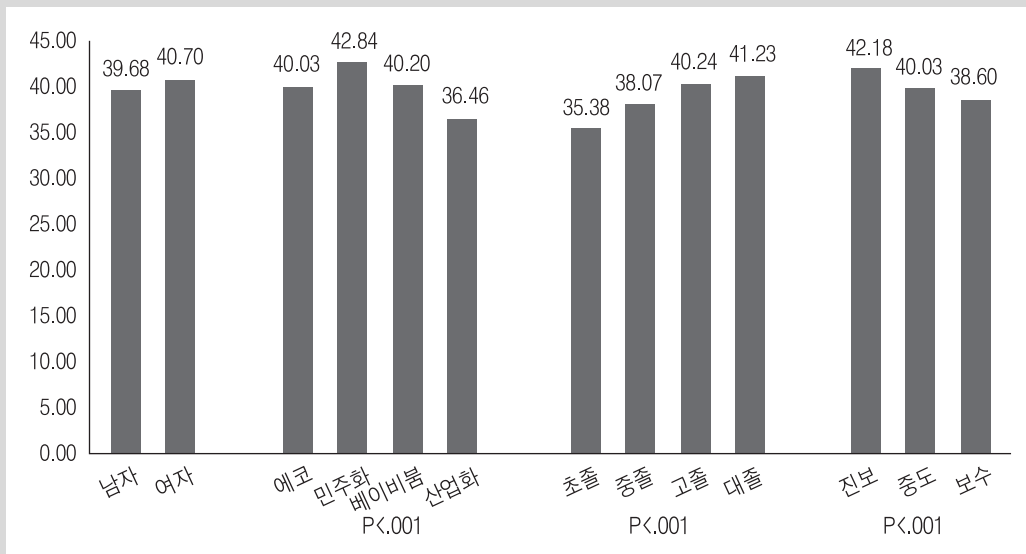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생활영역 위험지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생활영역 위험지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8)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 위험인식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은 경제생활영역과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인다(그림 10 참조). 즉, 세대, 학력, 정치성향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산업화세대보다는 민주화세대가,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의 경우가 그리고 진보성향의 국민이 정치 및 대외관계 영역에서의 우리 사회의 위험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지적하였다.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9) 환경 영역 위험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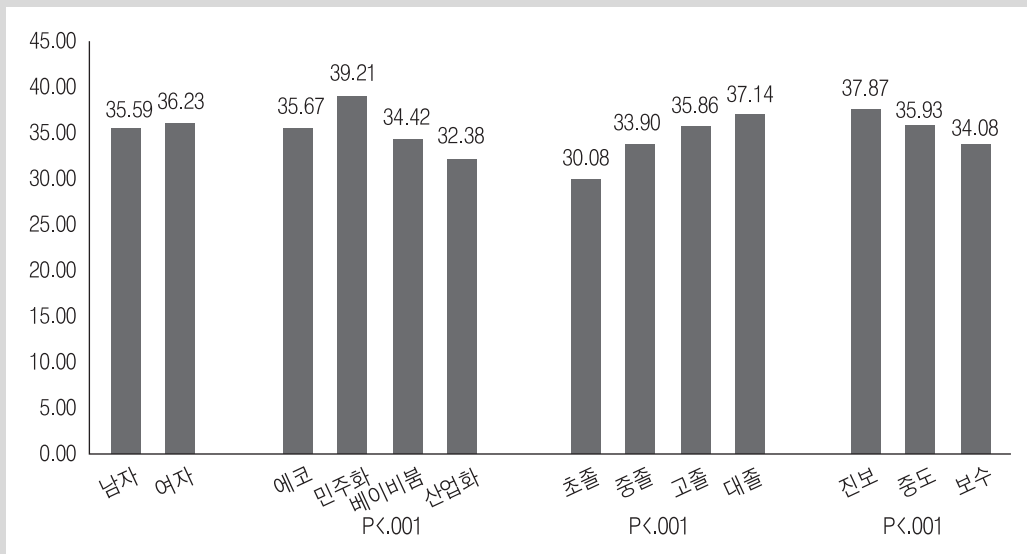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환경 영역에서는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였다(그림 11 참조). 남성보다는 여성이, 예코 및 산업화 세대보다는 민주

화 및 베이비붐 세대, 학력별로는 대졸 및 고졸이 중졸 이하보다, 그리고 진보성향의 경우가 보수성향보다 환경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위험지수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5.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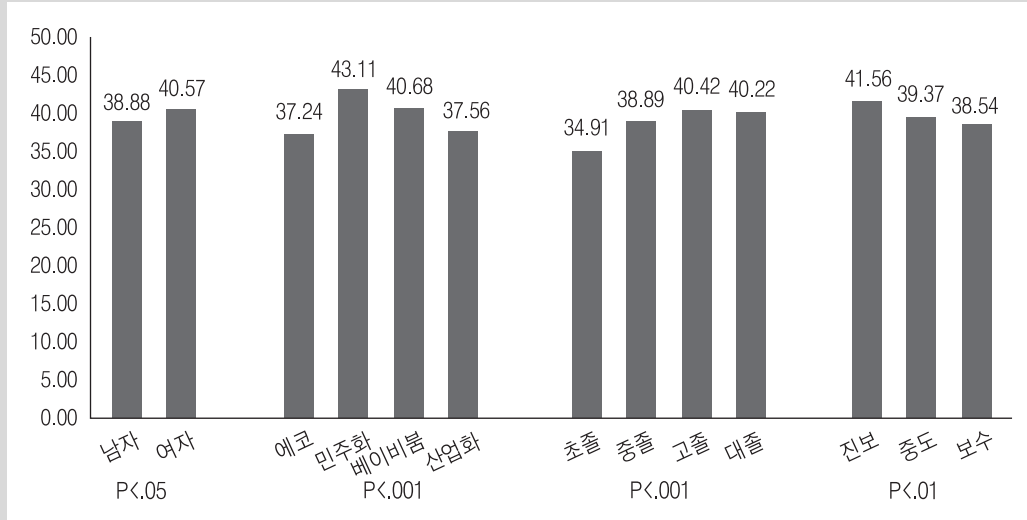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위험인식이 높은 분야는 경제생활영역이었고, 특히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보면 여성, 민주화세대, 그리고 대졸자, 그리고 진보성향이 있는 경우가 사회의 위험에 대해서 더 그렇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그림 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및 대외관계영역 위험지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환경영역 위험지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과제를 제시한다.

1) 중산층의 안전의식 제고 방안 마련

민주화세대, 대졸자들은 특히 우리 사회가 위험에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은 주로 중산층으로서 외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층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안정이 본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중산층이 사회에 대한 불안의식이 높을 때 전체 사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의 우리 사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정책이 수

반되어야 한다. 중산층들이 불안감의 갖고 있는 노후생활보장, 사회의 폭력범죄 노출 문제, 실업 및 빈곤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세대별 차별화된 위기의식에 대한 접근 마련

세대별로도 뚜렷한 인식상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민주화 세대(35~49세)의 사회위험지수가 높은 반면, 산업화세대(59세 이상)는 낮았다. 다만 산업화세대도 건강, 환경, 자연재해 등에 대한 위험의식은 높았다. 연령코호트별로 차등화된 사회적 경험이 사회의 안전도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위기의식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 생산층으로서 사회 여러 영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층이다. 이 집단들이 사회에 대해서 위협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중추 세력이 사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민주화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나 산업화세대와는 다르게 우리 사회가 호황을 지나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이 막 사회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이 이들에게 사회의 안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생활 관련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실업과 빈곤대책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등 실효성 있는 생활안정화 대책 등이 시급하다.

3) 정치이념적 상반된 견해를 가진 집단 포용정책 마련

정치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들이 우리 사회가 위협하다고 보는 의식이 더 많았으므로 이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들은 주로 30~40대의 민주화 세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경험한 여러 사회적인 불만요인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동시에 이 집단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비하여 이들의 의견과 견해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노동시장의 안정화 정책 마련

경제생활 영역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과 함께 안정된 계약직, 여성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공고화 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을 위해서는 경력이 단절되었더라도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할 수 있어야 하겠고, 중고령자의 탈빈곤을 위해서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특히 일자리의 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통해서 여성도 중고령 인력을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주체별 위험 분산방안 마련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정부의 위험 대처수준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¹²⁾ 위험에 대한 관리는 국가만으로는 감당되지 않는다. 김영란(2011)은 국가는 사회적 위험 관리에 대한 주체가 되고, 국가는 사회의 위험을 극복하도록 가족과 노동시장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즉, 국가, 시장, 가족의 복지삼자관계에 기반을 둔 복지체제를 통해서 탈위


12) 김미숙·이상영·정진욱·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김영란(2011). 앞글.

험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따라서 시장과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자가 역할을 감당하여 건실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위험에 대한 상시점검과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김영욱(2006)은 위험관리에 대한 상시점검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위험관리 관련 법을 만들고, 이로써 위험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¹⁵⁾ 그는 사회적인 위험은 개인이 노력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

공성 확보가 중요하며,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¹⁶⁾ 그럼에도 정부만으로는 사회의 위험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과 가족의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국제적 위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응정책을 강화하고, 국내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국가의 신뢰도 및 안전도 제고, 이를 통한 국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4) 김영란(2011). 앞글.

15) 김영욱(2006). 위험사회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위험에 대한 성찰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2(3), pp.192~232.

16) 김영욱(2006). 앞글